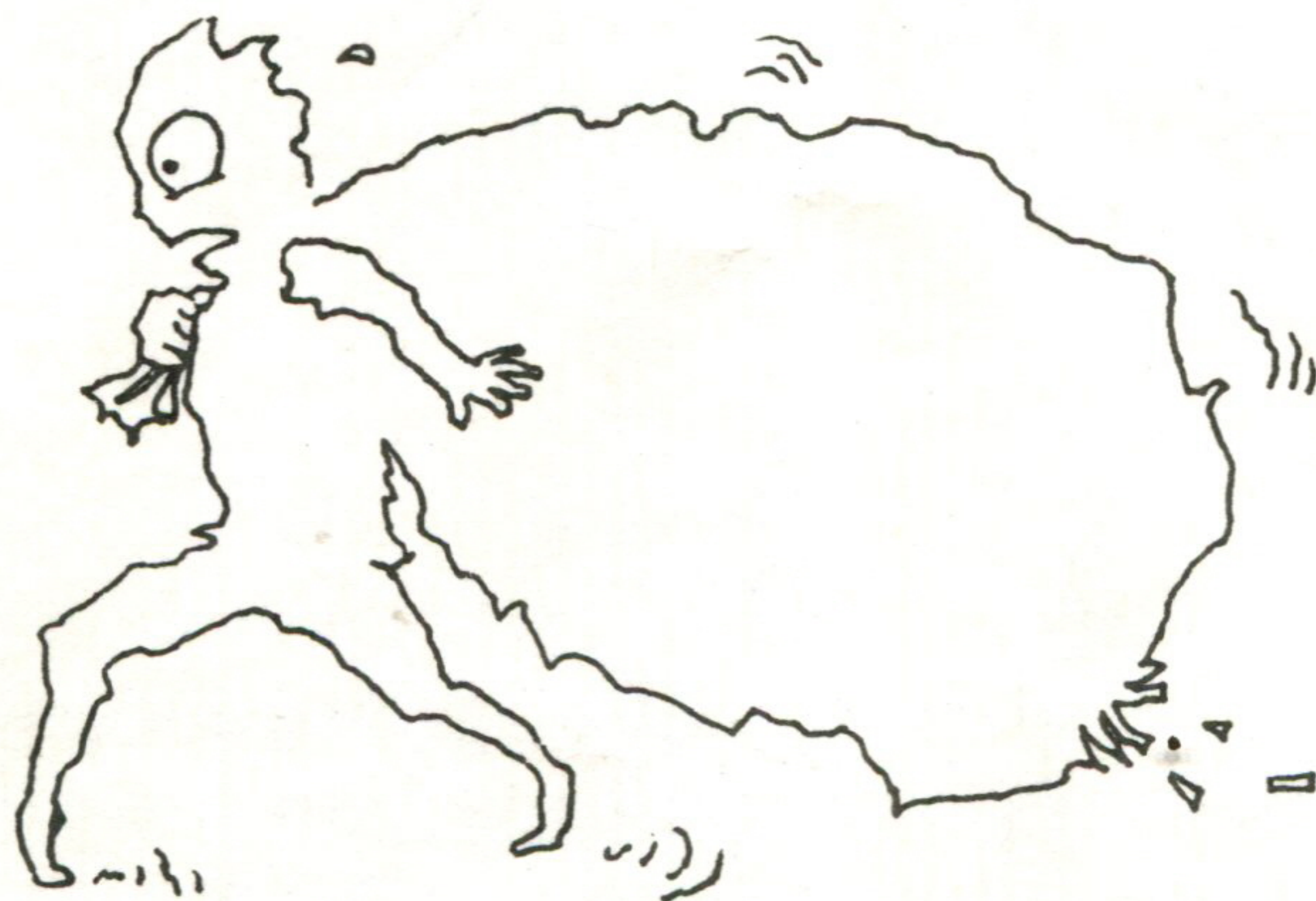


서·툰·사·람·의·서·툰·사·랑·이·야·기

서툰사람들의 꿈



장진 / 작
심창신 / 연출

97. 6. 5. (목) ~ 29 (일)

목. 금 7:30

(월. 화. 수 공연 없음)

토. 일 3:00 / 6:00

열린소극장 (T. 5555-025)

말 · 이 · 서 · 툰 · 남 · 자



연출 / 심창신

몇년간의 극단 생활 속에서 많은 경험과 다양한 직책, 분야의 일들을 해왔다. 그 속에서 불려진 별명 또한 여러가지이다. 말을 버버거린다고 '어버버', 막노동 현장 책임자 같다해서 '심십장', 후배들 극단생활에 있어 이것저것 간섭한다고 '심설교' '심잔소리' 그리고 'Open Sim', '홍어 x' 등등으로 불려졌다.

97년엔 또다시 어떻게 일컬어질지 궁금하다. 어버버, 심설교, 심잔소리 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의 연극 작업형태나 연극정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이번 작품은 2년전에 대본을 처음 접하고 꼭 한번 형상화 해보고 싶은 욕심을 가졌던 작품이었다. 대본 자체로서의 재미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화이와 덕배의 서툰 듯하면서 따뜻한 사랑이 재미를 더했다. 이번 공연에서는 재즈음악을 극속에 삽입하여 극분위기를 고조시켜보고자 했다.

그동안 묵묵히 작업에만 몰두해 온 단원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Cookin'을 듣고 싶다

서 · 툐 · 이 · 야 · 기

종달새와 매의 사랑 이야기 하나

종달새의 새장에 매가 자루를 메고 들어 왔다. 물론 종달새는 계속 종달종달 지저귀었다. 매는 이 조잘거리는 종달새를 묶어두고, 먹이를 자루에 열심히 넣기 시작했다. 그러나 종달새는 같은 새로 매를 챙기며 도와주었다. 갑자기 매는 종달새의 소리가 이제 더 이상은 시끄럽게 느껴지지 않았다. 매는 자신의 발톱에 종달새가 다칠 것 같아서 잔뜩 발톱을 움크리며 친구가 되었다. 새장 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매가 낚아 온 먹이를 먹으며 행복의 노래를 불렀다.

한밤중에 화이의 작은 아파트에 찾아 온 방문객은 도둑인 덕배였다. 덕배는 커다란 자루를 메고 다니는 이 시대의 마지막 순수한 도둑이다. 화이의 작은 아파트로 들어온 덕배는 자신의 일에 충실하려고 하지만, 잠시 겁을 먹었다가 금방 조잘거리는 화이때문에 잘 되지 않는다. 화이와 덕배는 티격태격 싸우기도 하고 웃으며 이야기하기도 한다. 김추락의 자살 소동 때문에 약간의 오해가 생기기도 하지만, 화이의 덕배 위하는 마음에 의해 금새 풀어지고 둘은 어느새 도시인의 고독감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다.

느닷없이 화이의 사진에 반한 서팔호가 찾아오지만 둘이 합심하여 멋지게 쫓아 보낸다. 어느새 도둑과 주인의 관계는 커피를 나눠 마시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고, 서로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나눈다.

약수를 핑계로 딸을 만나러 온 유달수의 등장으로 화이와 덕배는 다시 머쓱해진다.

물,

영터리 매듭법,

사과 반쪽,

따뜻한 커피...

첫눈 내리는 날, 도시의 뻘뻘한 숲을 빠져 나와 화이와 덕배는 투명한 서툰 사랑을 시작한다.

서 · 툰 · 가 · 습 · 울 · 가 · 진 · 사 · 람 · 들



장덕배 / 배진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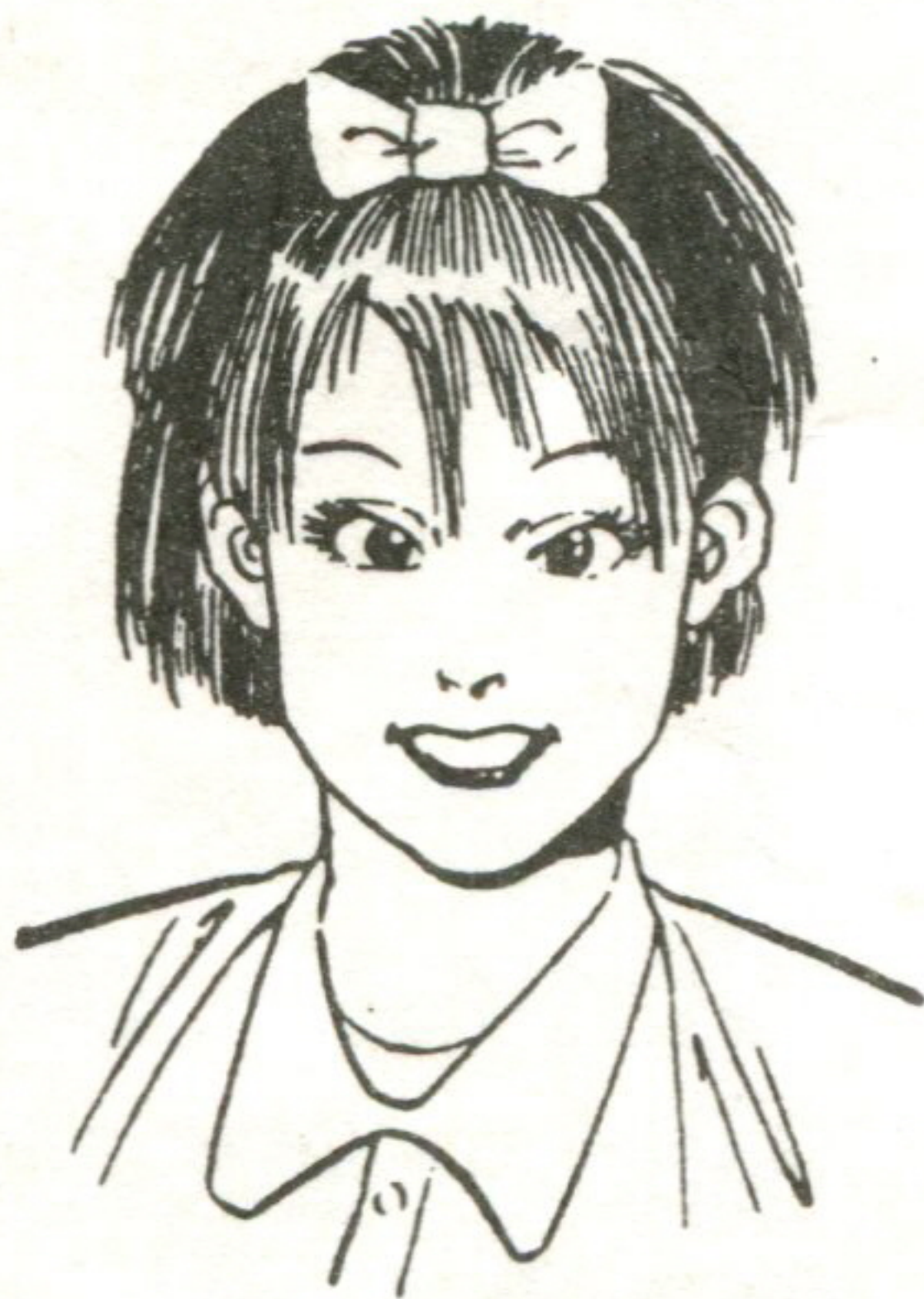
1일 노동 시간 : 6시간

1일 수면 시간 : 10시간

직업 : 도둑님

두려운 것 : 경찰, 말 많은 여자

특징 : 커다란 자루를 들고 다님,
특이한 매듭법 가짐



유화이 / 최숙희

1일 노동 시간 : 12시간

1일 수면 시간 : 6시간, 때론 밤 샘.

직업 : 중학교 영어 선생

두려운 것 : 도둑, 외로움

치명적인 질환 : 폰수암



김추락
서팔호 / 유재명
유달수

1일 노동 시간 : 대중 없음

1일 수면 시간 : 그 날 기분에 따라 다름

직업 : 다양함

두려운 것 :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음

치명적인 질병 : 질병이 더 무서워함

사 · 랑 · 이 · 서 · 툰 · 사 · 람 · 들



무대 감독 / 황성현
봄이 되면 자기 세상을 찾는 개구리 소년



조명 / 정화선
예명 엉거(발음 유의)



무대 미술 / 김원태
마술의 손을 지닌 어른



기록 · 진행 / 정은수
잡부 아니면 시다!



음향 / 김영립
일곱 난쟁이의 시중을 드는 백살(?)공주

◎ 보이지 않는 임들

장치 / 구현철

영원한 97학번

그림이 / 김철년

손준혁

음악 도우미 / MONK

올 유월에는 재즈를 느껴보자

김성환 (재즈 칼럼리스트)

재즈는 양에 있어서 방대함이나 그 수 많은 제목 만큼 저마다 다른 무수한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다. 또한 100년사를 통하여 그 시대시대마다의 독특한 느낌이 존재한다. 따라서 그 음악을 특정 스토리나 분위기를 지닌 연극이나 영화에 삽입하는데 있어서도 거의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곡을 선정할 때 깊이 생각하기 시작하면 겁잡을 수 없이 복잡해질 것 같아 대본이 주는 이미지에 따라 거의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곡을 고르게 되었다.

재즈라는 음악은 음을 쏟아붓는 순간 허공으로 날아가 버리는 그야말로 즉흥적인 속성의 것이다. 그래서 청자들에게도 사색보다는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권하고 싶다. 상·중·하로 나누는 식의 격을 따지기보다 자신이 들어서 좋은 음악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재즈 음악에 접근하는 최상의 길이다.

● 서툰 사랑이 시작될 때

Autumn (작곡 : Polo Orti) / Gary Burton Quintet

비브라폰의 거장 게리 버튼이 현대 재즈 기타계의 선두주자가 된 팻 메스니와 재결합하여 1990년에 발표한 음반 「Reunion」 (GRP)에 수록된 곡. 팻의 77년 재즈필드에서의 데뷔는 바로 게리 버튼의 주선으로 이뤄진 것이며 그 후 그들은 함께 그룹을 결성하여 재즈계에 화성적인 방법을 발전시켜 나갔다.

● 사랑을 움짙 때

Ragman (작곡 : Jim Hall) / Jim HALL & His Orchestar

영원한 몽상가, 독특한 코드 보이싱, 하모니 감각으로 재즈 기타에 색채감을 불어 넣었던 짐 홀이 최근에 발표한 「Textures」 (Telarc)에 수록된 곡. 그는 여기서 재즈 기타리스트로서의 면모를 일신하여 작곡가로서의 결실을 이뤄내고자 하며 미국의 현대 음악적 기법을 수용하여 다분히 통제된 재즈 사운드를 들려 준다.

● 사랑이 시작될 때

Blue In Green (작곡 : Miles Davis & Bill Evans)

/ Miles Davis Quintet

마일즈 데이비스의 걸작 중의 하나이자 재즈 역사를 통해서도 빛나는 작품성을 인정받은 음반 「Kind of Blue」 (Columbia)에 수록된 곡. 조성 재즈가 갖는 즉흥 연주의 한계를 극복하여 모드 미디엄을 도입한 작품으로도 유명하며 음영미를 그려내는 사운드는 이전의 재즈에서 느낄 수 없었던 색다른 것이었다.

● 사랑이 떠나가려고 할 때

Django's Dream (작곡 : Martin Taylor) / Martin Taylor

영국 출신의 기타리스트 마틴 테일러가 젊시 출신으로 불우한 환경과 신체적 제약을 극복하여 모던 재즈 기타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장고 라인하르트를 기리며 발표한 작품 「Spirit of Django」 (Linn Records)에 수록된 곡.

● 사랑이 이루어질 때

Cookin' (작곡 : Kevin Eubanks) / Kevin Eubanks

어쿠스틱, 일렉트릭 재즈를 가리지 않고 폭 넓은 활동을 펼치고 있는 케빈 유뱅크스는 마크 휘트필드, 러셀 말론 등과 더불어 현대 재즈계를 대표하는 정통파 기타리스트이다. 이 곡은 그의 92년작 「The Searcher」 (GRP)에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마크 레드포드의 스캣과 켈빈의 태평이 어우러져 유머스럽고 감각적인 사운드를 들려 준다.

J A Z Z E S S E N C E

monk **M** onkm
onkm **O** nkmo
nkmo **N** kmon
kmon **K** monk

LIVE SPOT
T. 515-3142